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도약 박차

임실군, 반려견과 함께하는 ‘쓰담 힐링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1,500만 반려인의 성지이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최근 오수반려누리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와 협력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쓰담 힐링 클래스’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주말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함 교감을 돕고, 보호자의 올바른 돌봄 역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반려견 5마리와 보호자 8명이 참여해, 인근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서 반려견들이 산책을 즐긴 후, 전문 강사의 안내로 반려견 마사지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체험했다.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는 자연스러운 교감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마사지 수업에서는 반려견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임실군은 오수반려누리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와 협력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쓰담 힐링 클래스’를 운영했다.

완화, 림프 순환을 돕는 마사지 기법을 배우고 실습했다.

보호자들은 강사의 시범을 보며 직접 반려견에게 마사지를 실시했으며, 반려견들이 보호자의 손길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행사 중에는 반려견들의 프로 필사진 촬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향후

에도 오수반려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쓰담 힐링 클래스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 강화를 돕는 동시에, 지역 반려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오수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실전 같은 재난훈련으로 대응 역량 강화

순창군은 지난 27일 경천면 일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극한호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과 하천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제11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팔덕저수지의 수위 상승과 하천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총 16개 기관·단체에서 330명의 인력과 49대의 장비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징후 감지와 초기 대응 △주민 대피와 인명 구조 △현장 수습과 응급 의료 지원 △복구 활동과 훈련 평가의 4단계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주민 대피 유도, 고립 주민 구조, 응급환자 분류와 치료, 제방 유실 상황 대응 등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높은 몰입도와 긴박감을 자아냈다.

아울러,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드론 수



색, 보트 투입, 임시 의료소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또한 순창군 자발방재단은 주요 예찰 활동과 구조 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이번 훈련을 총괄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천변 꽃양귀비 만개

임실 천변에 꽃양귀비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붉은 자태를 드러내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임실천 주변에 식재한 꽃양귀비가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며 붉고 고운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식재된 꽃양귀비는 양귀비와 다른



종으로 개양귀비 혹은 우미인초라고 불리며 원예종으로 재배할 수 있다. 개화 시기가 다소 늦었던 작년과 다

르게 올해는 좀 더 빨리 꽃양귀비가 만개해 천변을 따라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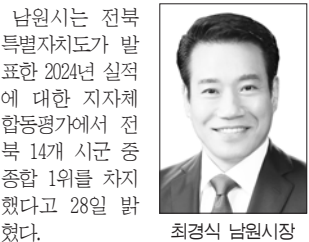
군은 1.1km 구간에 수국 등 관목류와 단년 및 다년생 초화류를 함께 심어 붉은 꽃양귀비와 또 다른 조화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만개한 꽃양귀비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는 6월까지 아름다움이 지속될 예정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행정역량 ‘도내 최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14개 시군 중 종합 1위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4년 실적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북 14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의 이번 성과는 지난 2018년부터 8개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것으로, 행정역량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17개 관역시·도를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을 일자리, 안전, 보건, 복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전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남원시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분야(68개 지표)에서 취업지

원 서비스 달성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등 63개 국정지표를 달성했다.

또,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한 정성평가 분야(15개 지표)에서 시부 1위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남원시가 펼친 정책들이 차별성과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를 위해 부단체장 주재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남원시는 이번 성과로 재정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가 8개년 연속 전북 1위를 달성한 것은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 행복 연구 활동 박차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의원 연구단체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 연구단체는 △도시재생 발전 연구회 △문화유산관광 발전연구회 △스마트농업 발전연구회 △노후가 행복한 남원 연구회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 모임이다.

도시재생 발전연구회 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문화유산관광 발전연구회는 남원의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과 그에 따른 생

활인구 확대 기여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스마트농업 발전연구회는 증가하는 스마트농업 수요에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농업을 위한 원예품종 관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가 행복한 남원 연구회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남원지역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모임은 남원민의 좋은 축제를 만들어 남원지역 상생발전 및 생활인구 증가로 남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피난 안전대책 강화

남원소방서는 불철 화재 안전대책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피난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난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피난시설(경량칸막이, 완강기) 체험 및 합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아파트 경량칸막이(실질 모형) 탈출 및 이동형 완강기 활용 체험 △모바일 앱(아파트 아이) 활용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홍보 △승강기 미디



어보드 활용 아파트 화재발생 대피 방법 홍보영상 게시 △아파트 화재대피 안내방송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다중이용시설 일제 위생점검 완료… 모두 양호

순창군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업소들이 모두 위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의 지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위생담당자 2명이 참여해 일반음식점 9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등 총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 상태 및 방충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 식품위생법령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모든 업소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어린이 모발 니코틴 무료 검사 실시

순창군은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1~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발 니코틴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발 니코틴 검사는 모발을 채취해 그 속에 축적된 니코틴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간접흡연뿐 아니라 3차 흡연(담배 연기 잔류물)의 노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다.

이번 검사는 선착순 1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취된 모발은 국립안센터에 검사 의뢰되며, 결과는 약 3개월 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 골든장학퀴즈’ 행사를 운영하며, 전통시장과 강천산 군립공원 등지에서는 금연 캠페인을 병행해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